

행복시대 국가경찰의 처세술

조병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1절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경찰정신

새 천년이 시작된 이후로 사회 전체가 ‘행복’에 홀려서 콩깍지가 씌어있는 형국이다. TV, 신문, 잡지 할 것 없이 행복에 관한 특집과 기획보도가 넘쳐나고 행복에 관한 저술, 번역, 강연이 도처에서 요란하다. 따라서 국가경찰도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서 국민의 갈망을 최대한 채워주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것은 국가경찰에 대한 헌법과 국민의 기대이기도 하다. 헌법 전문의 후단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제10조의 전단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서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제10조의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어 국민의 행복추구를 충실하게 보살펴야 할 국가경찰의 책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향유할 자격을 갖는다. 마침 복지기본법도 생기고 「경찰 정체성」 제정립 보고서도 나왔다. 2011년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발간한 「행복교과서」는 행복의 개념을 ‘마음이 즐거

운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마음이란 사람의 영혼이 작용하는 감성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사람의 감성체계는 ‘마음의 성감대’에 속하는 영역이며, 행복이란 바로 이곳이 절정(오르가즘)을 느껴 영혼의 떨림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행복추구를 보살펴야 하는 국가경찰도 이런 관점에서 사명을 재확인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警察’이라는 영광스런 호칭은 국민의 행복을 보살펴야 할 국가경찰이 마음에 새겨야 할 자세를 간명하게 알려준다. ‘삼가다(敬)’ 아래 말(言)이 놓인 ‘警’은 매사에 조심하되 특히 말을 공손하게 하라는 뜻이고, ‘집(乚)’ 아래 제사(祭)가 놓인 ‘察’은 조상의 제사를 모실 때처럼 지극정성으로 국민을 보살피라는 뜻이 분명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복무규정에는 없는 훌륭한 경찰정신 두 가지를 새롭게 만날 수 있다. 바로 ‘겸손’과 ‘지극정성’이다. 공손하고 겸손은 말씨 앞에서 불편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반대로 말씨가 거칠고 무례하면 곱으로 되돌려주고 싶은 것이 보통사람의 심리이다. 조상의 제삿날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심신과 복장을 단정히 하여, 최고로 신선한 음식과 과일을 운기 나는 그릇에 정성으로 담아 놓고, 엄숙하게 향을 피우고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 마음으로 직무에 임하는 경찰을 보고 영혼이 떨리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성경 구절(눅 18:14)은 ‘국민을 겸손과 정성으로 섬기면 경찰의 행복도 자연히 증만해질 것’임을 알려준다. 검찰(檢察)과 보호관찰(保護觀察)의 ‘察’도 의미가 같으니 모두 함께 낮은 자세로 임하면 국민의 영혼이 시시각각으로 감동에 젖을 것이다.

지금도 이미 국가경찰은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려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행사장의 현수막에서 ‘행복한 세상’이 흔하게 보이고 경찰버스들은 “선진일류경찰이 되어 국민의 행복을 지키겠다.”고 써 붙이고 다닌다. 문제는 공식적인 사명과 정신 어디에서도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거나 “국민을 겸손과 지극정성으로 섬기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공무원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처음 반영된 제5공화국헌법(1980)에 맞춰서 1983년 6월 새로 추가된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사명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히는데 그치고, 경찰정신도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이라고 적는데 그쳤다. 1991년 7월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되면서 제정한 「경찰헌장」에 처음으로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문구가 들어갔으나 1998년 「경찰서비스헌장」으로 대체되면서 이마저 사라졌다.

규정과 현장이 따로 놀게 된 것은 오랜 세월을 제 정신이 아닌 남의 정신으로 지냈던 탓이라고 생각된다. 첫째는, 국가경찰이 출범하면서 대다수 인원(약 80%)을 일제경찰 경력자로 채워 이전의 강

압정서가 그대로 남았다. 둘째는, 미군정 기간에 미국인 관료들과 미국유학을 거쳐 ‘police’의 철학에 익숙한 사람(조병옥)이 경찰조직을 이끄는 동안 본래의 정신인 ‘겸손과 지극정성’이 자취를 감췄다. 서구의 ‘police’는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을 함축한 것으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함축한 ‘警察’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셋째는, 북한공산군의 남침으로 국군과 함께 교전 현장 및 공비토벌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군대문화가 스며들었다. 넷째는 전쟁 후 10년 가까이 자유당의 부패와 독재를 노골적으로 돕다가 시민봉기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국가경찰의 근본정신이 뿌리를 잃었다. 다섯째는, 1961년 박정희의 5.16쿠데타 이후 30여 년 동안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단속하느라 역사사지의 심정으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수용하는 여유를 익히지 못했다.

제2절 행복의 맥락화와 무재질시 생활화

국가경찰이 정신을 놓고서 지내온 대가는 국민의 차가운 냉대와 외면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문민정부 출범으로 대의정치가 성숙할 수 있는 바탕이 조성되고, 2000년대 들어서는 민주화 속도에 맞춰서 경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로 국민의 시선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여론의 줄기는 경찰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확연하게 성숙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가경찰이 어떤 방법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따져볼 시점이 되었고, 방법론으로는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창안한 맥락화(脈絡化·contextualization) 기법이 기다리고 있다. 맥락화란 역사 연구에서 다양한 배경들을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의 개념으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국민의 행복과 관련되는 배경들을 서로 이어지는 관계로 연결지어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다. 행복의 맥락화를 어떻

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행복지수가 좌우될 것이므로, 모든 국민이 오로지 성공에만 관심을 쏟아도 국가경찰은 절대로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디서나 ‘겸손과 정성’을 반복적으로 명심하고 되새기면서 항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 도표는 행복의 요소를 만족감, 안정감, 자존감으로 상정할 경우에 가능한 맥락화를 예시적으로 작성해본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경찰업무의 구분에 따라 각기 다른 맥락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행복감을 주는 데는 모든 경찰공무원이 보시(布施)를 생활화하는 것보다 좋은 처방이 없을 것이다. 보시는 가진 것이 넉넉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빈손이라도 몸·입·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훌륭한 보시들이 많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무재칠시(無財七施)’가 대표적

본보기이다. 몸으로는 사신(捨身)·자안(慈眼)·화안(和顔)·상좌(床座)·방사(房舍) 보시가 가능하고, 입과 마음으로는 각각 애어(愛語)와 심려(心慮) 보시가 가능하다. 이러한 보시들을 잘하면 생기(生氣), 총기(聰氣), 화기(和氣), 재기(才氣), 윤기(潤氣), 덕기(德氣), 향기(香氣) 등 일곱 가지 기운이 저절로 생긴다고 한다. 무재칠시 중에서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자안, 온화하고 밝은 얼굴로 대하는 화안, 부드럽고 친절할 말씨를 뜻하는 애어, 지극한 마음으로 상대의 기쁨·슬픔·아픔을 함께 하는 심려 보시가 특히 실천은 쉬우면서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별도의 준비 없이도 마음의 각오만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라 믿어지고, 국민에게 투영되는 경찰의 아우라(aura)가 두터워져 결과적으로 경찰관들의 행복도 크게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 현장에서 이미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그것이 보시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맹자를 읽으면서 맹자를 모른다.”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경찰사명, 경찰정신, 경찰서비스현장에 직접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경찰정신에 ‘겸손과 정성’을 추가하고 보면 경찰의 심벌인 참수리 형상이 부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우선, 물고기와 작은 짐승들을 잡아먹는 식습관에 맞춰서 진화된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이 새로운 경찰정신으로 발굴한 ‘겸손과 정성’을 무색하게 만든다.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건 없이 베풀 것 같은 인상 대신에 먹이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보이지 않을 극단의 냉혹함이 차갑게 느껴진다. 둘째는 썩은 고기도 즐겨 먹는 식습관이 ‘청렴’ 이미지를 덮어버리는 측면이 있다. 셋째는 집단생활보다 단독생활을 더 즐기는 습성이 공동체의식이 증시되는 현대사회의 흐름을 거스르는 느낌을 준다. 넷째는 하늘의 질서를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였다는 설명은 ‘강압(強壓)’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어 신사·자안·화안·애어·심려 같은 보시

행복의 맥락화 [경찰]

만 족 감	안 정 감	자 존 감
불편애소	불안제거	감동전달
민원꺼리	범법단속	예우 대접
신속 편리	엄정 확실	겸손 정성

무재(無財)의 칠시(七施)

		七氣	
몸	사신 捨身	육체적으로 남을 돕는 것	生氣
	자안 慈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聰氣
	화안 和顔	온화하고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것	和氣
	상좌 床座	개인의 자리를 영보하는 것	財氣
	방사 房舍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潤氣
	애어 愛語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대하는 것	德氣
	마음	심려 心慮	지극한 마음으로 상대의 기쁨/슬픔/아픔을 함께 아는 것

아우라
A u r a

행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다섯째는 우리 땅에 뿌리를 두고 사는 토종 텃새가 아니다. 독수리·검독수리·흰꼬리수리와 함께 천연기념물 제243호로 지정되어 있지만, 근거지에 먹이가 사라지는 겨울철에 잠시 와서 머물다가 고향의 사정이 풀리면 다시 돌아가는 집시동물에 속할 뿐이다. 만약 바꾼다면 우직하고 근면한 소(牛)가 적격이라고 생각된다. 농업국가의 5천년 역사를 서민과 함께 하며 곡식, 채소, 과일의 생산과 운반을 우직하고 근면하게 책임져 왔을 뿐 아니라, 중국에는 맛있는 고기로 사람들의 입맛을 채워주고 가죽은 옷과 악기로 남는 삶의 과정이 국가경찰이 지행해야 할 '겸손과 정성'과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제3절 구별습성 청산과 중도(中道) 지향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리는 상당 부분 사실이고, 국적·성별·혈통·학력·직업·재산·외모·신분·신앙·출신·연령 등의 차이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는 상황이 흔하게 생긴다. 차별대우를 느끼면서도 행복을 느낄 국민은 없을 뿐더러, 경찰에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국민이 늘어서 고생과 비난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넬슨 만델라와 투투 대주교가 대승적 타협으로 남아공의 누적된 흑백갈등을 단순히 해소한 것은 '복장은 달라도 속의 사람은 같다'고 여기는 아프리카 특유의 인류애 즉, 공동체 의식 덕택이었다. 스티븐 린던의 작은 저서 〈우분투〉는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하여 그 안에서 뜻이 일치되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삶의 지혜와 슬기를 간결하게 알려준다. "사람 위에 사람 없

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도 있듯이, 겉으로 보이는 차이는 단지 포장의 차이일 뿐이고 인간의 본질은 한 가지 뿐이다.

불교경전의 하나인 〈법화경〉에 일수사견(一水四見)이라는 말이 나온다. 똑같은 물을 두고, 사람은 마시는 식수로, 물고기는 사는 집으로, 귀신은 불(火)로, 그리고 천상의 사람들은 감로수로 각각 여긴다는 뜻이다. 세간의 이슈인 차별, 외면, 배척, 따돌림, 학대 같은 현상도 실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경계를 만들어 대상을 구별하는 습성이 바위처럼 박혀있다.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우등과 열등, 천재와 바보, 주류와 비주류 같은 구별은 모두 생각의 결과일 뿐이다. 소신과 고집, 유연과 변질, 양보와 패배, 배려와 특혜 등의 구분도 사실은 같은 것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다. 중국 선종(禪宗)의 승찬대사는 〈신심명(信心銘)〉에서 "도를 이루기는 어렵지가 않으나 좋고 싫고를 따지는 분별심이 문제"라고 적었다. 성철 스님 역시 "인간의 절대성은 남녀, 노유(老幼), 귀천 할 것 없이 평등하여 선악, 시비 등의 구분이 없으며, 아무리 악하고 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모두 지고지선(至高至善)한 절대적 존재이니, 이것이 부처님께서 고창(高唱)하신 본래의 성불"이라고 하였다. "혈벗고 굶주린 사람도 본 모습은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니, 모든 상대를 존경하며 받들어 모시라"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살인·강도 등 극악 죄인을 부처처럼 공경할 때 비로소 생명의 참모습을 알고 참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국민을 '겸손과 정성'으로 대하려는 경찰은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4상(四相)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나를 높이고 상대를 경멸하는 아상(我相),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인상(人相),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나쁜 것은 남에게 넘기는 중생상(衆生相), 사람을 차별하고 차

별하는 수자상(壽者相)이 그것이다. 성철 스님의 말대로 “천지는 한 뿌리고 만물은 한 몸이며, 일체가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일체이니 모두가 평등하며 낱낱이 장엄하다.” 스님은 “노담과 공자 손을 잡고 석가와 예수 발을 맞추어 뒷동산과 앞뜰에서 태평가를 합창하니, 성인·악마 사라지고 천당·지옥 흔적조차 없다. 장엄한 법당에는 아멘 소리 진동하고 화려한 교회에는 염불소리 요란하니, 겹다 희다 시비 싸움 꿈속의 꿈이다.”라는 법문으로 구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였다. 일체의 구별이 없어져 대립과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불교용어로 중도(中道)라고 한다. 국민이 있으므로 경찰이 있고, 국민이 흡족해야 경찰이 흡족하다. 국민은 경찰의 소중한 고객이면서 고마운 고용주다. 국민이 없으면 경찰도 없고, 국민이 죽으면 경찰도 죽는다. “경찰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구호를 경찰이 외치면 곤란하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아차 하면 “국민의 행복보다 경찰의 행복이 먼저다.”로 오인될 수 있다. 경찰은 “국민이 행복해야 경찰이 행복하다.”고 외치고, 국민은 반대로 믿는 나라가 되는 나라다. 성숙한 경찰의 빛나는 행복은 따로 챙기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일상생활 그 자체다.

제4절 경청의 습관화로 국민의 자존감 증진

‘경청(敬聽)’ 보시에 주력하는 자세야말로 국가경찰이 국민의 영혼에 큰 떨림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비책이라고 생각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감을 지니며, 마음으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때 바로 이 자존감이 충족될 때이다. 그런데 사람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 준다고 느낄 때 최고조로 올라간다. 자신 이외의 누군가가 자신과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존감은 증진해진다. 상대방이 온전하게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으면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서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분에 휩싸인다.

자존감을 지킬 수만 있다면 설사 많은 일이 잘못되어도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자존감에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는 즐거운 기분이 유지되지 않는다. 자존감의 충족에 수반되는 기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재산,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상대에게 호감을 갖는 것이므로, 경청 자세는 곧 ‘행복한 소통’의 견인차라 할 것이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서 듣기에 충실하면 위험을 피하면서 지혜의 두께를 더하고 상대에게 위안과 감동까지 줄 수 있다. 세상에 이름을 높이 떨친 성직자, 의사, 학자, 정치인, 경제인, 법조인, 군인, 탐정, 감독, 코치, 상담사, 점술가, 판매왕 등은 하나 같이 ‘경청의 달인’들이다.

앞에 소개한 무재칠시를 충실히 따르기만 하여도 경청의 효과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경청에도 사신·자안·화안·상좌·방사·애어·심려가 당연히 필요하고, 실천의 효과로 일곱 가지 기운이 생겨 아우라가 커지는 이치도 같다. 하지만 한 자 ‘聽’에 담긴 깊은 뜻을 통해 경청의 가치와 필요성을 보다 확실하게 깨칠 수 있다. 먼저 글자 왼쪽의 귀(耳) 아래 임금(王)을 놓은 것은 ‘귀’의 위상이 제왕보다도 높음을 나타낸 것이다. 옛날 사회에서 임금은 무소불위의 권좌를 누렸다. 존재 자체가 곧 ‘법’으로 통하는 절대자였으며, 백성들도 하늘의 아들이자 만인의 아버지로 받아들여 모셨다. 따라서 지엄한 임금의 위치를 귀보다 밑에 놓은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고 용서받기 어려운 무례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화(禍)가 없었다면 ‘聽’자에 담긴 육중한 무게감 덕이었을 것이다. 누군가가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면 신뢰를 가지고 고민을 털어놓고, 건설적으로 들으면 속내를 감추고 거부감을 갖는 것이 인간이다. 마음속의 고민, 불만, 걱정 등을 속 시원히 털어놓으면 날아갈 듯이 후련하고 활기찬 기분이 느껴진다. 경청의 우울증 치료효과를 입증한 연

구도 많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훌륭한 친구가 많고 주변의 평판도 좋다.

오른쪽 상단의 열(十) 아래 그물(罟)을 놓은 것은 듣는 자세를 함축한 것으로, 작은 물고기도 모두 잡히도록 그물을 겹쳐서 치는 어부의 심정으로 마음을 집중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고기 잡는 어부에게 그물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달린 생명 같은 도구다. 따라서 열 겹의 그물은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한다는 뜻이니, 선(禪)을 수련하듯 오로지 듣는 일에만 몰입하라는 의미가 된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도 있질 않나? ‘열 겹’을 ‘열 개’로 해석하면 그물을 넓게 치라는 뜻이 된다. “망(罟)을 눈(目)이 누운 것으로 보면, 열 개의 눈으로 폭넓게 살피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눈도 입만큼 말을 한다.”거나 “눈이 혀보다 정직하다.”라는 말은 눈빛·눈매·시선에 마음이 투사된다는 뜻이다. 언어구사

에 동반되는 각종 특성, 습성, 몸짓에도 화자(話者)의 속내가 투영된다. 오른쪽 하단의 하나(一) 밑에 마음(心)을 배치한 것은 듣는 요령을 함축한 것으로, ‘상대와 한 마음이 되라’는 의미로 읽힌다. 예단이나 짐작을 버리고 상대의 가슴을 파고들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내면의 감정을 공유하라는 뜻일테니, 이 시대를 사는 학부모·교사·경찰·검사·판사·배심원·교도관·보호관찰관·변호사들이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할 기본이 아닌가?

성서의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설명은 경청의 요령과 위대함을 함축하는 말로도 딱 들어맞는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경청’으로 바꿔서 적어보면, “‘경청’은 참고 기다립니다. ‘경청’은 친절합니다. ‘경청’은 시기하지 않고 뽀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경청’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경청’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경청’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가 된다. 이청득심(耳聽得心)은 ‘귀 기울여 들으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니, 경청이야말로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는 ‘괴물’이 아닌가? 상대의 기쁨, 슬픔, 만족, 불만, 희망, 절망 같은 마음의 상태는 진정성이 가득한 넓은 가슴으로만 포착할 수 있다.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불후의 연설’이 아니라 ‘불후의 경청’이다. 커뮤니케이션 이론 가운데 ‘6분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처음 3분은 집중해서 듣고, 다음 2분은 맞장구를 쳐주고, 마지막 1분 동안에 자신의 생각을 압축해서 밝히면 어떤 국면도 쉽게 풀린다는 것이다. 경청의 결과는 감사·미소·웃음·칭찬·격려·양보·협조·배려의 풍요이고, 단축의 결과는 까탈·투정·짜증·핏대·신경질·삿대질·폭로·욕설·주먹질·발길질·갈부림·파탄·이혼·자살의 얼룩이다.



제5절 탄죽 버릇 추방으로 공감의 단맛 공유

사람은 자존감에 대한 위협에 매우 민감한 동물이다. 자존감이 손상될 상황이 닥치면 즉각적으로 상대의 말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합리화한다. 누구나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면서도 남이 지적하면 날카롭게 반발하며 역공으로 맞서려는 반응을 보인다. 무심코 뱉은 한 마디가 상대의 자존감을 자극해 극심한 좌절, 실망, 포기, 은둔, 잠적, 반항, 탈선, 가출, 폭언, 폭로, 소송, 주먹다짐, 칼부림, 심지어는 끔찍한 살인이나 자살까지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상대의 말을 역지사지 심정으로 경청하는 습관은 불행한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아준다. 말실수가 자동으로 차단되어 화(禍)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순간순간을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면서 입을 닫고 지낼 수는 없다. 그런데 입(口)은 온갖 맛있는 것을 독식하면서 실언을 남발하며 끊임없이 재앙을 불러온다. 말솜씨 하나로 나라를 건졌다는 일화도 많지만 말을 잘못해서 가문이 몰락하거나 목숨을 잃은 사례가 훨씬 더 많다. 오죽하면 불가에서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오니 입을 지켜라. 모든 사람의 불행한 운명은 그 입에서 생기는 것이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다.”라고 경고할까. ‘못된 심보’보다 ‘고약한 말’이 더 행복을 막고 불행을 부른다.

귀, 눈, 코(구멍)는 두 개씩인데 입은 하나인 이유는 듣고, 보고, 냄새 맡은 것의 절반만 말하라는 뜻일 것이다. 눈, 코, 입은 스스로 닫을 수 있는데 귀는 그렇지 않은 것은 항상 열어두라는 뜻이리라. 절집 불사의 귀들이 큰 것은 잘 들어야 지혜를 얻는다는 암시다. 깊은 사랑도 우정도 상대를 훌륭한 경청자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수시로 이치를 거슬러 화(禍)를 자초하고 고통을 겪는다.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지, 예단, 묵살, 반박, 판청, 편잔, 면박 등을 일삼는 ‘판죽’ 행동은 관계를 부수는 악(惡)이요 독(毒)이다. 경솔한 한 마디가 상대의 분노를 야기해 충돌의 악

순환이 끊이질 않는다. 가정에서는 불화·별거·이혼을 부르고 일터에서는 따돌림·보복·모함을 부른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세치 혀가 사람 잡는다.’, ‘웃자고 한 말에 초상난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같은 속담에 담긴 뜻은 살벌하다. 처세의 달인이었다는 옛날 중국의 풍도(馮道)는 설시(舌詩)에서 “입은 곧 화에 이르는 문이요(口是禍之門) 혀는 곧 몸을 베는 칼이니(舌是斬身刀) 입을 닫고 혀를 깊숙이 감추면(閉口沈藏舌) 가는 곳마다 몸이 편할 것이다(安身處處牢)”라고 충고하였다.

경청은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등을 동일하게 보고 느끼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를 잠시 접는 것이다. 이 점에서 경청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부정(dying to self)’에 속할 수 있다. 미국의 제임스 셸리만 신부는 “경청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며 신비한 힘을 발휘하여 사랑을 완성하고 상대의 우울증, 마음의 상처, 죄책감까지 치료해준다”고 하였다. 경청은 의사소통, 공감 및 의지, 인정 및 존중을 바라는 욕구에 적절히 부응하여 상대의 기쁨을 키워준다. 그러므로 국가 경찰이 경청 한 가지만 충실히 잘해도 엄청난 호응과 찬사가 쏟아질 것이다. 범죄예방과 수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찰의 순찰, 검문, 탐문, 피해자 조사, 참고인조사, 피의자신문은 물론이고, 이후



의 검찰수사, 재판, 교정, 보호관찰까지 진지한 경청이 수반되면 재범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흉악한 범 죄자라도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면 쉽게 누우치고 빨리 솔직해지는 것이 사람의 천성이다. 형사와 검사들이 경청을 잘하면 소환된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자학(自虐) 혹은 자해(自害)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고도 막아질 것이다.

제6절 가치관 리모델링과 역지사지 혁신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건강·학식·직업·지위·재산·가족·나이 같은 개인적 요소도 있고, 사회·국가·체제와 같은 집단적 요인도 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상대적인 것들에 의해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성공의 상징으로 통하는 지위(권력), 재물, 명예 같은 것들도 손에 넣는 바로 그 순간에 권태가 잉태된다. 따라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바로, 가치수준이 높은 고차원의 쾌락은 도달점(climax·절정)이 없다는 점이다. 행복은 결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활기찬 삶의 '과정(過程)'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다. 행복은 성공의 꿈을 이루거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일에 열정을 쏟는 과정에서 슬며시 생기는 일종의 '부수이익'이다. 영화 <철의 여인>의 대사 가운데, 사람의 생각·말·행동·습관·인격·운명은 필연적 연속성을 갖는다는 대목이 나온다. 행복의 중추는 가치관(價値觀)이라는 메시지다. 물질적 성공을 행복의 잣대로 여기는 가치관은 그 수준을 낮게 친다. 반면에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사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가치관은 그 수준을 높이 친다. 포도밭의 때루아가 좋아야 명품와인이 생산되듯이, 기본 생각이 훌륭해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대변하며 살았던 테레사 수녀의 위대함은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믿음을 철저히 실천한 데에

있다. '많이 밀쳐야 크게 남는다.'는 비밀을 세상에 누설한 것이다. 앞길이 보장된 의사의 길을 버리고 모든 것이 척박하고 내전으로 치안마저 부재한 아프리카 남수단을 스스로 찾아간 이태석 신부가 죽어서도 칭송을 듣는 이유 역시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만 전력을 쏟았기 때문이다.

인내·이해·양보·용서·친절·배려·신뢰·존중·감사·효도·용기·자신·열정·근면·절약·정직·여백·여유·유머...등은 행복을 부르는 약(藥)이고, 고집·편견·억지·구별·독선·질투·허세·시기·탐욕·의심·성화·보복·홍분·폭언·성토·폭로·밀고·매수·싸움...등은 불행을 부르는 독(毒)이다. 하지만 행복을 부르는 처세는 비싸게 배웠어도 어색하고, 불행을 부르는 습성은 배운 적이 없어도 익숙하다. 자고나면 드러나는 화이트칼라 범죄는 교육수준이 높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고학력 전문직업인들의 전유물이다. 소(于)와 사자가 서로의 매력에 이끌려 결혼을 했다가 곧바로 헤어졌다는 우화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두에게 역지사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소는 초원으로 식사를 나갈 때마다 맛있는 풀들을 뜯어서 사자의 식사로 가져다주고, 사자는 숲에서 사냥한 동물의 맛있는 부위를 남겨서 소의 식사로 가져다줘서 결국은 갈라섰다고 하듯이, 선하고 착한 일이라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낭패가 따를 수 있다. 뉴욕의 한인타운이 위치한 플러싱지구 경찰서는 서장실이 우리나라 경찰서의 민원실 위치에 있고 출입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주민편의를 제대로 고려한 것으로, 역지사지의 귀감이고 국보급 노-하우로 여길 만하다. 답으려면, 신선한 과격으로 과감히 버리고 비워야 한다. 입구가 막힌 병에는 아무 것도 담을 수 없다. 화단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면 잡초를 뽑아내야 한다. 종(鍾)과 악기의 아름다운 울림은 빈 공간에서 생기는 것이다. 여성의 자궁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려면 그곳이 신선하게 비어있어야 한다. 하수(下手)는 언제나 복잡하고 고수(高手)는 자나 깨나 단순하다. **KIC**